51-80-건설1월 1904.6.17 2:39 AM 페이지54

벌교도마교

벌교 도마교

벌교읍은지리산의줄기를따라남쪽으로 내려앉은무등산과고흥반도의중간지점에 있으며, 지표상으로는 북위 34도 동경 127도 23분에위치하고있다.

벌교읍의역사를거슬러보면조선시대중엽에부차군에속하였으며후에낙안면에이속되었다. 낙안군의 변두리 갯마을이었던 벌교는 1908년 고상, 고하 등 2개의 면으로 나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남상면, 남하면과흥양군동면하송리일부와 순천시 동하면 봉림리, 동상면 세곡리 일부를 병합, 벌교리의 이름을 따서 벌교면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1929년 4월 순천군 동초면의연산, 봉림, 희정, 장양, 호동등5개마을을편입하여 20개리가되고 1937년 7월1일에벌교읍으로승격되었다.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땅 벌교

벌교는 동으로는 제석산이 우뚝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수려한장군봉과평풍산, 남쪽으로는청정해역으로유명한여자만이끝없이 열려 있으며, 북으로는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증광산과백이산이벌교읍내 한가운데 자리한 부용산과 어울려 아름다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고장이다. 특히, 여자만에서서식하는 어패류는 신선함과 그 독특한 맛이 전국에서도 으뜸이며, 어디에서도그맛을볼수없는벌교만의자랑이기도하다.

또한, 벌교읍주변의관광지로는먼저, 순천시낙안민속마을을들수있는데이마을은실제로주민이거주하는민속마을로봄, 가을경 남도 음식 및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영화나TV의촬영장으로많이이용되고 있다. 보성군 율포면에는 전국 최대의 녹차 밭이 형성되어 있으며 1999년 녹차 밭을이용하여크리스마스추리를설치해기네스북에오르기도하였으며바닷가앞에는해수녹차탕이있다.

전통음식으로는여름철별미로는짱뚱어탕과서대회, 참장어회등이있으며, 가을및 겨울철 별미로는 전어회, 고막 등 어패류가 있다. 보성군 전통 음식으로 지정된 민물우렁탕과 시골닭백숙, 그리고 민물장어구이도 자랑음식이다.

躍馬浮定의 형세에 기인해 逃馬라 불러

벌교읍의대표적인문화유적으로는보물 304호로 지정된 벌교홍교와 지방유형문화재 173호로 지정된 도마교와 석비, 그리고

51-80-건설1월 1904.6.17 2:39 AM 페이지55

천연기념물제90호로지정된은행나무등이 있다.

이중은행나무는고읍리서쪽 799번지에 있다. 고읍마을은조선성종때에이곳에서 강상죄를범한사건이발생하여고을의현을 폐하고현재의순천시낙안으로현을옮기면서 ‘고을의 옛터(고읍)’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은행나무에는가을에 많은 은행이 열리는데, 은행을 따다가 떨어지더라도몸에상처를입지않는다고한다. 근처에는 황새가 많이 날아오지만 이 나무에는 한마리도앉지않으며, 자식없는부인들이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예부터 마을을 지키는 영험한 나무로 여겨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날에는 온 마을에서 음식을 장만하여제사를지낸다. 수령은600년쯤이며높이25m, 둘레7m이다.

벌교홍교에서1km 정도떨어진전동리에는벌교 광주국도변에서100m 떨어진평촌마을 앞 전동제 저수지의 수로 위에 도마교가 자리잡고 있다. 이 도마교는 초지마을 입구의초지들과전동리에서으뜸이되는평촌마을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 평촌마을남동쪽에는나무로놓은다리가있었는데, 다리에 코르타르를 칠해 빛이 검어 ‘검은다리’라불렸다고한다. 그러나지금은 도로확장공사로인해묻혀없어졌다.

속칭‘도매다리’로불려온도마교는인근에 있는 부용산의 생김새인 약마부정(躍馬浮定)의 형세에서 기인하여 도마(逃馬)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배가다리밑으로드나들었다고한다. 이는도마천의 옛 이름이 배가 들어오는 도랑이라는 뜻의 ‘배들꼬랑’이라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교는 1800년 무렵에 어느 도사가 놓았다는데 누구든지 밟고 지나면 ‘달각’하는 큰 소리가 났다고한다. 그런데어느날관원이말을타고 지나다가 ‘달각’하는 소리에 말이 놀라 도망쳤다하여도마교라는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도마교는다리인근에도마교비와 도마교중수비(逃馬橋重修碑)가있어설립내력을알수있다. 도마교비는높이94cm, 폭 45.5cm, 도마교중수비는높이 116.5cm, 폭 68cm이다. 도마교 중수비에 의하면 최초의 다리설치는1645년(인조23년) 현지읍민(낙안군고읍면)인정착락, 장선용등에의해처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마교상의 시주명단에정착락등의이름이확인되었는데 이러한것들로사실을 확인할수있다. 중수비 음기에는 ‘都護幹前施主鄭公晶樂曾孫幼學在舜化主前施主張公善龍孫嘉善翼純(도간전시주정공창락증손유학재순화주전시주장공선용손가선익순)’이라고기록되어있다.

특히, 중수비에는‘도마교가 끊겨진 적이 있어이다리를건너려면사람들이불가피하게발에물을적셔야만했기때문에몹시불편했던 것을 조선 숙종 8년(1682년)에 지방유지의희사금으로중수하게되어수레를타고도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을 돌에 새겨 기록으로 남김은 후세 사람들에게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는 우리 선인들의가르침이담겨있다. 하지만1682년 중수한이후의사정에대해서는현재전해오는 기록이거의없어그내력을알수없다.

벌교도마교비.

17세기의 교각 형태 잘 보여줘

도마교는높이177cm, 폭182cm, 그리고 길이가5.7m에달했다. 하지만1989년여름 홍수로인해절반이 파손되면서9개의부재로결구된1/2 정도의다리모습만남아있었는데최근그원형이복원되었다.

원래 사용된 석재는 단단한 화강암(낙안산 백석재)으로 방형석주를 결구하였으며, 바닥은 우물마루를 짜 맞춘 식의 원초적인 수법을사용하였다. 즉, 거칠게다듬은각석재(角石材)를 이용하여 결구시킨 지극히 원초적인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이다. 그러나, 17세기경의 생생한 우리나라 교각의 형태를볼수있는귀중한자료이다.

도마교는 한양으로 가는 직선 통행의 도로이며 호남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가는 길이기도하다. 그리고농사일은물론20여 년 전까지 마을 동제의 의식 대상의 일부였으나, 마을의전통적인공동체해체와함께그 의식들은 사라지고 농사일을 돕는 다리로 존속되어왔다.CJ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